〈 수 정 공 지 〉

아시아교육연구 20권 3호에 투고된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것이나, 해당 사항이 2019년 9월 30일 발간된 최초 원고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발간 후,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해당 사항을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논문을 이전에 열람하시거나 인용하신 경우, 이 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시아교육연구 편집위원회 -

아시아교육연구 20권 3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3, pp. 695-718.
https://doi.org/10.15753/aje.2019.09.20.3.69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미옥(柳美玉)**
김혜영(金惠英)***
임은미(任銀美)****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준비행동이 고용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둘 간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충청, 호남 지역의 전 학년 남녀 대학생 583명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검사, 고용가능성 검사, 전공만족도 검사,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매개변인인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가능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고용가능성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진로준비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모두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변인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상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준비행동을 통하여 성취경험을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이나 진로관련 흥미와 학업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전공만족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진로계획과 수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궁극적으로는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진로준비행동, 고용가능성,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 본 연구는 임은미의 지도로 이루어진 유미옥(2019)의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수정, 요약한 것임.
** 제 1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 제 2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Ⅰ. 서론

대학생 시기는 진로에 대한 정보탐색을 기반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진로준비를 실행하는 시기이다. 이처럼 대학시절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자,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취업준비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직업세계에서 발생하는 진로변화에 대처하고 개인의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인 고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백평구, 홍아정, 이희수, 2011; 오성욱, 유지현, 2008; 윤정혜, 2015; 정선정, 정진철, 2014).

고용가능성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새로운 고용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오성욱, 유지현, 2008). 고용가능성은 실제로 취업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개인이 고용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Fugate, Kinicki & Ashforth, 2004)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어려운 취업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지하게 되면 실제로 고용을 획득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활동은 고용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용가능성은 교육과정과 직업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Harvey, 2003), 대학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용가능성 관련변인으로는 진로준비행동(김옥경, 2018; 이상훈, 윤천성, 2016; 이종찬, 2013; 이주성, 2016; 황정희, 임석빈, 2015; McArdle et al., 2007), 진로탐색행동(조한익, 오홍석, 2011; 최동선, 2003; Harvey, 2003), 진로목표추구활동(이정애, 2009; 최연심, 2018; Vroom, 1964), 구직행동(오성욱, 이승구, 2008; 정신환, 2015), 취업전략(김효정, 2013),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강인주, 정철영, 2013; 김희동, 2014; 문승태, 박미하, 2013; 신주은, 2015; 유희정, 2015; 윤정혜, 2015; 전소현, 2017; 전주현, 2013), 진로결정수준(백인선, 2018), 전공만족도(강명숙, 2015; 이정임, 2016), 학습몰입(정선정, 정진철, 2014), 교육서비스(김재현, 2012) 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가능성 관련변인 중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차원에서 준비하는 활동이며(김봉환, 1997), 취업역량을 갖추고 직업적 잠재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반으로 밝혀져 왔다(강명숙, 2015).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들이 진로준비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를 밝혔다(김옥경, 2018; 이상훈, 윤천성, 2016; 황정희, 임석빈, 2015; McArdle et al., 2007). 예를 들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이상훈과 윤천성(2016)의 연구에서는 직업탐색행동과 고용가능성이 정적 관련이 있었다.

전공만족도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전공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으로써, 대학생활의 질을 높이

는 과정적 변인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전공만족도는 대학생들이 전공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주관적인 즐거움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함께 복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송윤정, 조규판, 2015).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학습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윤정헌, 2013). 이러한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들로는 강명숙(2015), 이정임(2016), 이주성(2016)등의 연구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고용가능성과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고용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인주, 정철영, 2013; 김옥경, 2018; 김희동, 2014; 문승태, 박미하, 2013; 백인선, 2018; 신주은, 2015; 유희정, 2015; 윤정혜, 2015; 이정애, 2009; 이주성, 2016; 전소현, 2017; 전주현, 2013). 또한 진로준비행동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지희, 2018; 조현철, 2015),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을 받으며,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옥경, 2018).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진로준비행동은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네 변인을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하여 적합성을 제시한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인과변인의 방향성이 주로 심리변인에서 진로준비행동 변인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들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이 심리적 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인턴활동만족도,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들이 등장하고 있다(김옥경, 2018; 김지희, 2018; 이상훈, 윤천성, 2016; 조현철, 2015). 아울러 진로지도와 상담의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보다 개입가능한 독립변수들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진로준비행동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마련해줄 수 있는 개입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이 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독립변인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독립변인으로, 고용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진로준비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 심리,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차원으로써 준비하는 활동을 말하며,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분야를 찾기 위한 탐색과 선택한 진로에 대해 준비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Spear(1979)는 진로와 관련된 인지과정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실질적 행위라고 하였고, Phillips와 Pazienza(1988)는 진로선택을 위해 준비된 행동과 실천의 행동을 일컬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의 진로에 대한 준비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김봉환, 1997). 첫째, 정보수집활동은 자신에 관한 정보와 직업에 대한 현황 및 전망, 취업방법, 작업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둘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하는 활동이다. 셋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것은 진정한 진로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고용가능성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옥경, 2018).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탐색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인턴활동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예비적 직업탐색행동과 적극적 직업탐색행동이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되었다(이상훈, 윤천성, 2016). 또한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희, 2018; 조현철, 2015).

2. 고용가능성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새로운 고용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오성욱, 유지현 2008). 특히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공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활동의 성과, 전공과 관련된 자격 취득, 취업기술, 진로정보 탐색 등이 고용가능성 변인의 핵심적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의 학습태도와 역량, 전공커리큘럼의 가치와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은 고용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강명숙, 2015). 본 연구에서 고용가능성은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스스로가 얼마나 지니고 있다고 지각하는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어진 일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과 차이가 있다.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이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이상훈, 윤천성, 2016), 고용가능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연구로는 강명숙(2015), 조한익, 오홍석(2011), 최동선(2003), Harvey(2003)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고용가능성과 전공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명숙, 2015; 이정임, 2016; 이주성, 2016). 고용가능성과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고용가능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인주, 정철영, 2013; 김옥경, 2018; 김희동, 2014; 문승태, 박미하, 2013; 백인선, 2018; 신주은, 2015; 유희정, 2015; 윤정혜, 2015; 이정애 2009; 이주성, 2016; 전소현, 2017; 전주현, 2013).

최근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가능성 관련 연구들(강명숙, 2015; 김성남, 2009; 김옥경, 2018; 문승태, 박미하, 2013) 중에서 강명숙(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역량, 그리고 전공의 가치와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이 고용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및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고용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major satisfaction)는 전공분야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며(Nauta, 2007), 자신의 전공학과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평가한 결과이다(하혜숙, 2000). Logue(2005)는 전공만족도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특성, 직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학전공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를 통하여 전공만족도를 개인적 차원, 학문적 차원, 직업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공에 대한 만족은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고 졸업 후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중요하다(어윤경, 2011).

전공만족도와 고용가능성에 관련된 연구들(강명숙, 2015; 이정임, 2016; 이주성, 2016; 조윤형, 정진철, 문명, 2012) 중에서 이정임(2016)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성(2016)의 연구에서는 경영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형 등(2012)의 연구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전공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느끼고 학교가 본인과 적합하다고 느껴서 만족도가 높을 경우, 이 두 요인은 모두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교적합은 취업가능성에 전공적합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학교적합이 취업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학습몰입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지각된 자기효능이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요구된 행위의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77). 또한 자기효능감은 성공에 필요한 감정적, 지적, 신체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자,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며,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이끌어 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Eden & Aviram, 1993; Gist & Mitchell, 1992; Martocchio, 1994; Peterson & Stunkard, 1992; Gallathy & Meyer, 1992; Wood et al., 1987).

Bandura는 사람이 자신의 자기효능신념에 영향을 줄 정보를 얻는 네 가지의 주요한 원천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원천으로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직접적 완성경험, 둘째 다른 사람의 성취에 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대리적 경험, 셋째 학습자가 특별한 과제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다른 사람이 설득하는 언어적 설득, 넷째 학습자가 현재의 과제에 참여할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내적 감정인 생리적 상태가 그것이다(양용칠, 2002; Bandura, 1997). Hackett과 Betz(1981)는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이 인간행위와 관련된 여러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에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성취행동 및 자신이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기효능감을 진로발달모델에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고용가능성과도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혀져 왔다.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옥경, 2018; 김지희, 2018, 조현철, 2015)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강인주, 정철영,2013; 김옥경, 2018; 김희동, 2014; 문승태, 박미하, 2013; 백인선, 2018; 신주은, 2015; 유희정, 2015; 윤정혜,

2015; 이정애, 2009; 이종찬, 2013; 이주성, 2016; 전소현, 2017; 전주현, 2013)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뿐 아니라 고용가능성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충청, 호남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62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각 대학의 조교들을 섭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우편으로 검사지 발송 및 수령을 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령은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 이루어졌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583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나이, 성별, 학년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변수	구분	빈도(명)	퍼센트(%)
나이	20 이하	242	41.5
	21 ~ 29	337	57.8
	30 이상	4	0.7
성별	남	303	52.0
	여	280	48.0
학년	1학년	141	24.2
	2학년	190	32.6
	3학년	148	25.4
	4학년	104	17.8
전체 (N)		583	100.0

2. 측정도구

1) 진로준비행동 척도

연구대상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봉환과 김계현(1997)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 16문항에, 진로와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학교 진로관련 상담부서 개설 또는 학생생활연구소 운영 등을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해 수정·보완한 임은미, 이명숙(2003)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최근 연구에서도 타당성이 입증되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홍성주, 2016; 이진미, 2017; 신하영, 2017), 하위요인으로는 정보수집활동 6문항(예: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도구구비활동 5문항(예: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목표달성활동 7문항(예: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응양식은 원도구에서는 4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으나, 문항응답방식의 일관성과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을 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반응하는 5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정보수집활동 .78, 도구구비활동 .71, 목표달성활동 .81로 나타났다.

2) 고용가능성 척도

연구대상의 고용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오성욱, 유지현(2008)의 고용가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이 현재 고용가능성을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고용가능성이 '매우 낮다'(1점)부터 '매우 높다'(5점)까지로 수정한 이종찬(2013)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하위변인은 5가지로 직업의식 3문항(예: 일(취업)을 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 직업탐색 4문항(예: 나의 능력에 맞는 직업 찾기 능력), 정신건강 2문항, 구직기술 6문항(예: 이력서 작성, 면접요령 등의 구직기술 정도), 구직대응성 8문항(예: 직업 환경 변화(업무절차, 기술향상 등)에 대한 적응력)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 2문항(8,9)의 신뢰도가 .54로 낮게 나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외하고 총 21문항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직업의식 .79, 직업탐색 .75, 구직기술 .78, 구직대응성 .84로 나타났다.

3) 전공만족도 척도

연구대상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Illinois 주립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와 Braskamp et al.(1979)이 대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학과평가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나동진 등(1985)이 번안하고, 장대운 등(1986)이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하혜숙(2000)의 학과만족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하혜숙(2000)이 개발한 측정도구는 5개의 하위요인과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는 교과만족 5문항(예:우리 학과(학부)의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관계만족 3문항(예: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와 만날 수 있다), 일반만족 7문항(예: 우리 학과(학부)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인식만족 5문항(예: 우리 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학교만족 7문항이며 응답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아주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성이 부족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이기보다는 학교의 평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만족에 대한 7문항(17,18,19,20.25,26,27)을 제외하고 총20문항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교과만족 .77, 관계만족 .70, 일반만족 .86, 인식만족 .78로 나타났다.

4) 자기효능감 척도

연구대상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et al.(1983)이 개발한 척도를 차정은(1997)이 타당화하고, 김아영(1997)이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 12문항(예: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자신감 7문항(예: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낀다), 과제난이도 선호 5문항(예: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자기조절효능감 .82, 자신감 .77, 과제난이도 .72로 나타났다. 역채점 문항은 총 24문항 중 9문항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의 기술 통계치,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구조모형 적합도, 팬텀변수를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확인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chi 2$, df(Degree of freedom), RMSEA, GFI, CFI, TLI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Bootstrapping method)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 수는 1,000개, 그리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개별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팬텀변수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의 관계

분석 결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87～.564, p<.01). 진로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에는 .288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자기효능감에는 .287 수준에서 그리고 고용가능성에는 .470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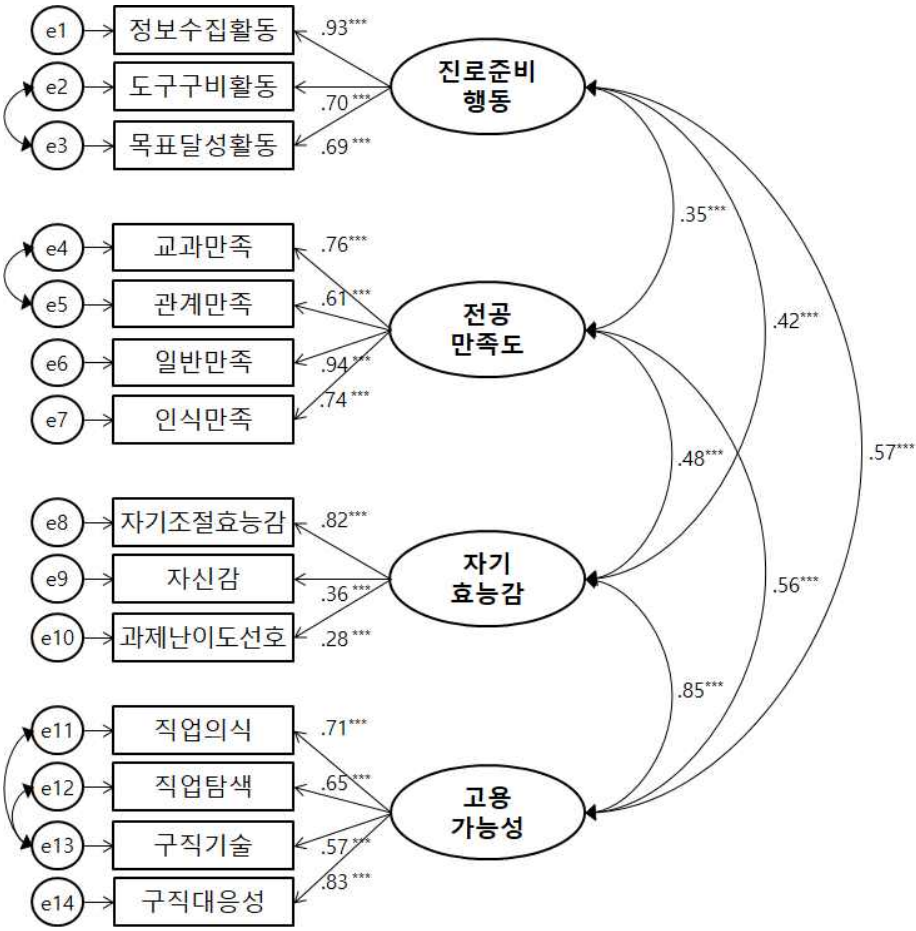
〈표 2〉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 간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치 (n=58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862**																	
3	.878**	.653**																
4	.910**	.643**	.723**															
5	.288**	.317**	.238**	.215**														
6	.252**	.270**	.219**	.187**	.847**													
7	.217**	.267**	.156**	.155**	.719**	.579**												
8	.280**	.307**	.244**	.201**	.932**	.726**	.573**											
9	.207**	.219**	.159**	.171**	.822**	.543**	.446**	.703**										
10	.287**	.313**	.202**	.241**	.319**	.235**	.218**	.301**	.298**									
11	.273**	.326**	.193**	.206**	.405**	.320**	.280**	.372**	.370**	.814**								
12	.151**	.192**	.088*	.118**	.139**	.090*	.120**	.134**	.122**	.681**	.268**							
13	.150**	.075	.132**	.181**	.026	−.002	−.023	.038	.050	.557**	.252**	.142**						
14	.470**	.455**	.367**	.419**	.469**	.348**	.327**	.444**	.426**	.564**	.608**	.268**	.210**					
15	.334**	.420**	.233**	.235**	.416**	.347**	.285**	.399**	.339**	.427**	.469**	.250**	.077	.704**				
16	.404**	.317**	.317**	.420**	.366**	.271**	.197**	.353**	.362**	.420**	.417**	.195**	.229**	.803**	.504**			
17	.362**	.273**	.311**	.368**	.269**	.182**	.190**	.246**	.273**	.337**	.401**	.072	.182**	.775**	.311**	.610**		
18	.390**	.434**	.295**	.308**	.441**	.323**	.342**	.418**	.381**	.569**	.602**	.318**	.166**	.863**	.579**	.523**	.485**	
평균	2.951	3.183	2.948	2.755	3.500	3.528	3.520	3.510	3.447	3.195	3.442	3.015	2.856	3.452	3.672	3.359	3.182	3.619
표준편차	0.681	0.759	0.776	0.774	0.588	0.644	0.746	0.698	0.696	0.398	0.480	0.644	0.645	0.514	0.767	0.702	0.603	0.595
왜도	−0.397	−0.363	−0.310	−0.178	−0.029	−0.098	−0.169	−0.130	−0.099	0.296	0.448	0.132	−0.131	0.075	−0.023	0.049	−0.026	0.029
첨도	0.184	0.176	0.012	−0.381	0.495	0.545	0.176	0.210	0.218	1.876	0.555	0.205	0.132	0.843	−0.462	0.243	0.709	0.468

*$p<.05$, **$p<.01$

1 진로준비행동 2 정보수집활동 3 도구구비활동 4 목표달성활동 5 전공만족도 6 교과만족 7 관계만족 8 일반만족 9 인식만족
10 자기효능감 11 자기조절효능감 12 자신감 13 과제난이도선호 14 고용가능성 15 직업의식 16 직업탐색 17 구직기술 18 구직대응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본 연구의 대상에서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측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이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은 236.549, df(Degree of freedom)는 67, RMSEA는 .066, 그리고 GFI .946, CFI .953, TLI .936으로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통계적 검증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인이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과의 상관이 유사하거나, 아니면 매개변인이 독립변인 보다는 종속변인과 더 큰 상관을 보여야 한다(서영석, 2010). [그림 1]에서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모두 독립변인(진로준비행동) 보다는 종속변인(고용가능성)과 더 큰 상관을 보여주고 있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측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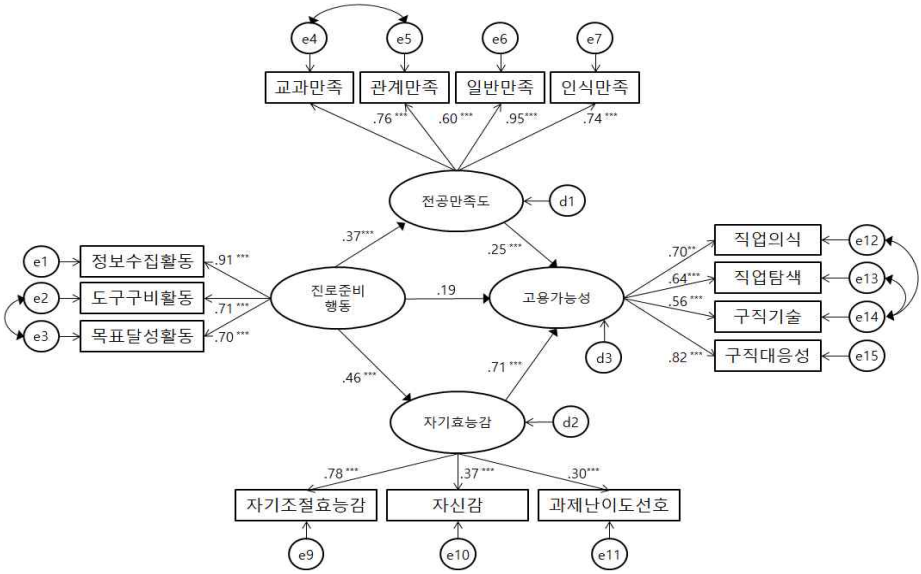
2. 진로준비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1) 구조모형 검증

진로준비행동과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그리고 고용가능성 간의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검증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 Modification lndices를 기준으로 한 수정규칙을 적용하였다(노경섭, 2018; 성태제, 2012). 노경섭(2018) 등은 가장 높게 나온 수정지수(Modification lndices)값을 기준으로 하나씩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다(Long, 1983).

그 결과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으로 구성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288.403, df=68, RMSEA=.075, GFI=.936, CFI=.938, TLI=.918로 나타났다. Hu & Bentler(1999)는 RMSEA는 .06보다 작은 값을 기준으로 보았지만, Browne & Cudeck(1993)는 RMSEA 값이 .05보다 크고 .08보다 작을 때에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측정모형에서 RMSEA값이 .05보다 크지만 .08보다 작으므로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모델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고용가능성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경로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β=.371, p<.001)와 자기효능감(β=.464, p<.001)에 모두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을 열심히 할수록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은 고용가능성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β=.248, p<.001, β=.707, p<.001). 즉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001

[그림 2]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의 구조모형

〈표 3〉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진로준비행동	→	전공만족도	.334	.371	.044	7.556***
진로준비행동	→	자기효능감	.162	.464	.032	5.047***
진로준비행동	→	고용가능성	.185	.189	.059	3.134
전공만족도	→	고용가능성	.270	.248	.043	6.270***
자기효능감	→	고용가능성	1.974	.707	.364	5.424***

***p<.001

4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이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Bootstrapping method) 을 사용하였다.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기능 하려면 독립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그리고 종속변인인 고용가능성과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하여야 하며, 독립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 종속변인인 고용가능성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하게 감소되어야 한다(박선미, 박병기, 2014).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매개변인인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독립변인인 진로준비행동 및 종속변인인 고용가능성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 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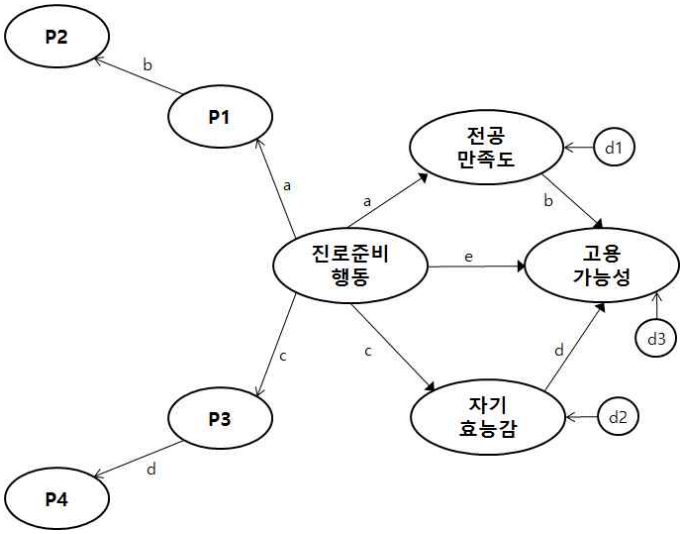
〈표 4〉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크기

변인 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진로준비행동	→	전공만족도	.371***	–	.371***
전공만족도	→	고용가능성	.248***	–	.248***
진로준비행동	→	자기효능감	.464***	–	.464***
자기효능감	→	고용가능성	.707***	–	.707***
진로준비행동	→	고용가능성	.189	.420***	.609***

***p<.001

본 연구와 같이 매개변수가 2개인 경우에는, AMOS에서는 개별 매개효과를 표현하지 않고, 총매개효과만을 표현한다.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매개변수별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팬텀변수를 사용해야 한다(박선미, 박병기, 2014). 팬텀변수는 가상의 변수로서 모델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3]은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팬텀변수 P1은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의 가상 잠재변수이고, 팬텀변수 P2는 종속변수인 고용가능성의 가상 잠재변수이다. 그리고 팬텀변수 P3는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의 가상 잠재변수이고, 팬텀변수 P4는 종속변수인 고용가능성의 가상 잠재변수이다.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진로준비행동에서 P2로의 매개효과를 보면 되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진로준비행동에서 P4로의 매개효과를 보면 된다(박선미, 박병기, 2014).



[그림 3] 팬텀변수를 이용한 개별 매개효과 분석 경로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다중매개모델을 분석하는 경우, 비표준화계수를 이용하여 유의도 검증 및 총효과에 대한 개별 간접효과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배병렬, 2015). 개별 매개효과 검증 결과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 모두 95% Bias-corrected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90, p<.05),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고용가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21, p<.05). 총효과에 대한 매개효과의 비율은 전공만족도의 경우 $\frac{.090}{(.090+.185)}=0.33$로 33%가 설명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의 경우 $\frac{.321}{(.321+.185)}=.63$로 63%가 설명되고 있다. 검증 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보다 매개효과가 훨씬 더 크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전공만족도와 함께 높은 자기효능감이 동반된 진로준비행동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5> 팬텀변수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매개변인		비표준화계수	95% BC	
			LB	UB
전공만족도	a×b	.090**	.055	.138
자기효능감	c×d	.321**	.221	.508

**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으로 선정하고 이 변수들과 고용가능성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충청, 호남지역의 남녀 대학생 58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경력계획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김옥경(2018)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고용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은 매개변인인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종속변인인 고용가능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인 이상훈, 윤천성(2016)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하는 반면에, 김옥경(2018)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김옥경(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희망진로유형이 취업 이외에 진학, 창업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하더라도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교육현장에서 진로준비행동만으로는 고용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개변인인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진로준비행동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고용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은 고용가능성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강명숙, 2015; 이정임, 2016; 이주성, 2016)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것이라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강인주, 정철영, 2013; 김옥경, 2018; 김희동, 2014; 문승태, 박미하, 2013; 백인선, 2018; 신주은, 2015; 유희정, 2015; 윤정혜, 2015; 이정애, 2009; 이주성, 2016; 전소현, 2017; 전주현, 2013).

이와 관련하여 윤정혜(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인 강점을 강화하여,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고용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또한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준비행동 프로그램이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준비행동을 통하여 성취경험을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이나 진로관련 흥미와 학업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전공만족에도 영향을 미쳐서, 향후 진로계획과 수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궁극적으로는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즉 진로준비행동 자체만으로는 고용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 프로그램에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유의하여 구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전공 공부와 진로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진로준비행동 프로그램의 활동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 활동에 따라서 발견된 자신의 장점,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될 정보와 자기 전공이 갖는 강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심리변인인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이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행동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은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진로준비행동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및 상담현장을 반영하여 진로준비행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행동변인이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옥경, 2018; 김지희, 2018; 조현철, 2015)는 있었으나,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졌을 때 전공만족도가 높아졌는지를 보고하는 내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셋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효과를 가지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상관연구를 바탕으로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탐색적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종속변인으로 다뤄졌던 진로준비행동을 현장의 개입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진로교육과 상담의 현장을 반영한 조치였으나,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설문응답 내용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용가능성은 실제 고용가능성이 아닌 고용가능성에 대한 응답자의 자기인식 수준을 반영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인터뷰 등의 질적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명숙 (2015). 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강인주, 정철영 (2013). 경기 지역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과 교육서비스, 자기성찰 및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3), 63-84.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김성남 (2009).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진단 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2), 1-19.

김옥경 (2018). 대학생의 경력계획,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고용가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김재현 (2012). 전문대학 교육서비스와 여대생의 고용가능성의 관계. **여성연구논총, 11**, 33-62.

김지희 (2018). 항공서비스 전공자의 취업준비행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김효정 (2013). 대학생의 취업가능성 인지가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김희동 (2014).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과의 관계 연구: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비서학논총, 23**(2), 93-110.

나동진, 송재홍 (1985). 전공-적성 불일치 학생, 현황과 성격적 특성. **학생생활연구, 16**(2), 424-431, 전주: 전북대학교.

노경섭(2018). 제대로 알고 있는 논문 동계 분석 SPSS & AMOS 21. 한빛아카데미.

문승태, 박미하 (2013).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효능감 및 인지된 고용가능성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79-104

박선미, 박병기 (2014). 매개효과 연구의 동향분석과 새로운 방향 탐색. **교육심리연구, 28**(1), 41-70.

배병렬 (2015). **SPSS/Amos/LISREL/Smart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청람.

백인선 (2018).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수준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백평구, 홍아정, 이희수 (2011). 여자전문대학 재학생의 고용가능성에 관한 인식유형. **주관성연구, 23**(1), 183-199.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성태제(2012).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송윤정, 조규판 (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355-374.

신주은 (2015). 대학생의 진로학습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신하영 (2017). 진로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양용칠 역 (2002). **수업설계를 위한 학습심리학.** 교육과학사.

어윤경 (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만족도, 대학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분석: 대학 전공선택 요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5), 1793-1811.

오성욱, 유지현 (2008). 구직서비스 유형별 취업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오성욱, 이승구 (2008). 구직자의 고용가능성 요인 탐색 및 취업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1**(3), 87-103.

유희정 (2015).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장벽 지각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결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사고개발, 11**(1), 155-178.

윤정헌 (2013). 관광전공 선택요인, 전공만족 및 학습태도와 성취도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25**(4), 239-257.

윤정혜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5**(2), 29-46.

이상훈, 윤천성 (2016).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의 직업탐색행동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인턴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 연구. **평생교육리더십연구, 3**(1), 5-23.

이정애 (2009).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직업획득 가능성이 진로 목표추구활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이정임 (2016).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이주성 (2016). 경영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상업교육연구, 30**(2), 1-31.

이진미 (2017).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스펙쌓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임은미,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학생상담연구, 1**, 101-113.

장대운, 박진현, 나동진, 이영식 (1986). 전공-적성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학과 적응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4**, 1109-1154.

전소현 (2017). 대학생의 경력계획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전주현 (2013). 공학교육인증제도 참여 대학생의 공학핵심역량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정선정, 정진철 (2014). 실업자 직업훈련생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훈련프로그램 특성, 학습몰입 및 경력계획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6**(4), 61-89.

정신환 (2015).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과 고용가능성 지각이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조윤형, 정진철, 문명 (2012). 학생-대학 적합성 지각은 학업성취도와 취업가능성을 높이는가? - 지방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43-259.

조한익, 오홍석 (2011). 조절초점과 인지적 기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123-143.

조현철 (2015). 대학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최연심 (2018).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인지 및 직업선택요인과 취업전략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홍성주 (20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가구소득, 전공특성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황정희, 임석빈 (2015). 전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고용가능성,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 **진로교육연구, 28**(2), 87-105.

Bandura, A. (1977). The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raskamp, L. A., Wise, S. L., & Hengstler, D. D. (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part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4), 494.

Browne, M. W., and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lif. : Sage.

Eden, D., & Aviram, A. (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352-360.

Fugate, M., Kinicki, A. J., & Ashforth, B. E. (2004). Employability: A psycho-social construct, its dimension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1), 14-38.

Gallathy, I. R., & Meyer, J. P. (1992). The effects of goal difficulty on physiological arousal, cognition, and task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694-704.

Gist, M. E., & Mitchell, T. R.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2), 183-211.

Hackett,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Harvey, L., (2003). Transitions from Higher Education to Work. York, *UK: Enhancing Student Employability Co-ordination Team & LTSN Generic Centre.*

Hu, L., and P. 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Logue, C. T.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f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

Long, J. S. (1983). *Confirmatoty Factor Analysis*, Beverly Hills, Calif. : Sage

Martocchio, J. J. (1994). Effects of concerns of ability on anxiety, self-efficacy, and learning in train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6), 819-825.

McArdle, S., Waters, L., Briscoe, J. P., & Hall, D. T. (2007). Employability during unemployment: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and human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2), 247-264.

Nauta. M. M. (2007). Asses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Majo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4), 446-462.

Peterson, C., & Stunkard, A. J. (1992). Cognates of personal control :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explanatory style.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1*(2), 111-117.

Phillips, S. D., & Pazienza, N. J. (1988).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Sherer, M., Maddux, J.,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Jacobs, B. (1983).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 663-671.

Spear, C. M. (1979). Job-seeking interview skills training: a comparison for four instructional techniqu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405-412.

Vroom, V. H. (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Wiley.

Wood, R. E., Mento, A. J., & Locke, E. A. (1987). Task complexity as a moderator of goal effects: A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3), 416-425.

* 논문접수 2019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9년 6월 7일 / 2차 심사 2019년 8월 30일 / 게재승인 2019년 9월 5일

* 유미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nikita98@hanmail.net

* 김혜영: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 E-mail: nadanny@nate.com

* 임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역서로는 진로상담이론(공저, 2010, 학지사), 다문화 상담(공역, 2011, 학지사) 등이 있다.
* E-mail: tgeunmi@hanmail.net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ability in University Students*

Yu, Mi-Ok**
Kim, Hye-Young***
Lim, Eun-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ffects the employability, and to verify whether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self-efficacy hav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employability. For this purpos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 the Employability Test, the Major Satisfaction Test, and the Self-Efficacy Test were performed for 583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Chungcheong-do and Jeolla-d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had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self-efficacy which are mediating variables. But it did not show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employability.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self-efficacy were all in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employability. In other words,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self-efficacy have ful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employability. The structural model fit with these 4 factors seemed to be go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can take a part in making employability higher with full mediating effects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self-efficacy.

Key words: Mediating e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mployability,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

* This paper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by Yu Mi-Ok(2019)'s thesis of master degree, 'The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ability in University Students'

** First author, Ph.D Candidat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Second author, Ph.D Candidat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